



농림수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28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정욱 홍보담당관이 축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노수현 축산정책과장은 국립식물검역원 영남지원장으로 이동했다.

신임 김정욱 축산정책과장은 1967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1997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8년 농림부 행정사무관으로 임관하였으며, 사무관 때 축산정책과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과장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성황리 개최



지난 9월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대전 KOTREX와 DCC에서 열린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는 국내외 축산업 관련 총 173개 업체 684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축산기자재 및 사료, 동물약품 등 다양하게 전시되었다. 제1전시장은 KOTREX에서 축산 기자재

업체, DCC전시관에는 사료, 동물약품 및 기관단체 홍보관, 옥외 전시관에는 축산기자재 업체 및 소독 제품업체 등으로 구성되었고, 전시회 뿐 아니라 축산물 시식회, 자선경매, 친환경축산 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관련 기사 97페이지 참조).

한국가금학회

추계학술발표회 11월 13일 진주산업대학에서



한국가금학회(회장 박장희)는 지난 18일 사료협회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추계학술대회를 오는 11월 13일 진주산업대학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진주산업대학 100주년 기념과 연계하여 개최하게 될 이번 학술대회는 신진과학자 발굴은 물론 포스터 전시 등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학술대회로 개최가 준비된다. 특히 가금학회지가 후보등재지에서 등재지로 선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보다 내실 있고 많은 편수의 논문이 투고되어 발표될 수 있도록 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한편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김재홍 서울대학교 교수 뒤를 이어 수석부회장으로는 한재용 서울대학교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전북대 양계산학연합력단

‘유럽연합 가금복지’ 국제심포지엄 개최



전북대학교 양계산학연합력단(단장 류경선)은 지난 8월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중회의실에서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유럽연합 가금복지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건국대학교 김진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계산학연합력단 류경선 단장의 사회와 고려대학교 지규만 교수, 충남대학교 이봉덕 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육계의 복지 체계 평가, 육용종계, 산란계의 복지로 각각 나뉘어 발표됐다. 먼저 영국 브리스톨대학의 버터워드 교수는 육계 복지분야 중 유럽연합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EU FP06복지 분야를 2007년에 진행된 복지관련 연구와 연계해 발표했다. 네덜란드 와겐닝대학교 로렌스 박사는 육용종계 복지와 관련 EU FP07에서 시작된 연구결과인 ‘가금행동을 기반으로 얻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독일 FUI 연구소 슈다라 박사는 2012년부터 전통적인 케이지 사육이 금지될 예정의 예를 들며 산란계 복지에 대해 발표했다. 류경선 양계산학연합력단장은 “앞으로 국내 양계산업도 활성화되려면 한·EU FTA에 대응을 위한 준비로서 복지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산이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유비무환! 재래닭 지킴이 본격 활동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15년에 걸쳐 개발한 재래닭을 비롯한 닭 유전자원 생축 6품종 1,400여수를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 중복 보존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실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성환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와 수원에 위치한 축산생명환경부에 분산 배치한 적이 있지만 성환과 수원과의 거리가 불과 31km에 불과해 안심할 수 없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의 가금류중복보존축사는 닭 4,200수와 오리 600수를 보존할 수 있게 계사 4개동 오리사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 질병유입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3단계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유전자원에 대하여도 가축유전자원시험장내에서 중복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제주출장소, 난지축산시험장으로 새 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 국립축산과학원 제주출장소가 8월 25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난지축산시험장으로 기관명칭을 바꾸고 9월 7일 현판식을 가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장장 정하연)은 제주도의 풍부한 축산자원과 축산의 적지에서 국가차원의 축산연구 추진이 중요성에 따라

1956년 중앙축산기술원 제주지원으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제주지역은 질병청정화 등 축산의 청정이미지와 녹색축산기술개발 및 현장접목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FTA 체결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축산위기대응과 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난지축산시험장으로 2009년 8월 25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축산 바이오가스생산 시설(SCB-M) 준공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축산 바이오가스(SCB-M) 생산 시설'의 준공식을 9월 23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최하였다.

하루 1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300kw의 전기를 축사 등에 공급하게 되는 이 시설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농가 보급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연순환 수익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진중공업그룹이 공동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시설을 활용하여 돼지분뇨 뿐만 아니라 한우, 젓소, 닭의 배설물과 도축부산물 등을 이용한 메탄가스 발생량 최대화 기술을 개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저비용 저에너지 소비형 시설과 수익형 모델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가방역기관 국제표준 동물질병 진단업무 (ISO9001) 인증획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동물 질병진단 업무절차 전반에 대해 국제 표준 규격인 'ISO9001(품질경영인증)'을 획득

함('09.9.4)에 따라 9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국 각 도 축산위생연구소와 함께 인증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 동물질병을 진단하는 기관은 총 62기관(국가기관 45, 수의과대학 10, 민간기관 7)이 있으나 무엇보다 국가 재난형 질병에 신속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국가방역기관인 검역원과 각 도 축산위생연구소(10개 기관)가 우선적으로 국제표준규격을 획득하였다. 지역 방역기관별로 전문인력, 시설 등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국제표준규격에 의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됨으로써 질병진단업무가 보다 체계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검역원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전북고창 오리 폐사원인은 리메렐라 감염증으로 확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전라북도 고창 소재 한 육용 오리농장에서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9000여마리중 1500여마리가 죽은 원인은 리메렐라 감염증으로 확인되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검역원은 죽은 오리의 부검소견, 바이러스 및 세균시험 등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인플루엔자 (HPAI)가 아닌 오리의 세균성 질병인 “리메렐라 감염증”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경기도 용인시 토종닭 폐사건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병과 회충증으로 복합진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9월 15일 의뢰된 경기도 용인소재 발생농장의 토종닭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병 및 회충증에 의한 복합감염으로 폐사하였다고 밝혔다.

감염된 토종닭은 침울, 졸음, 폐사 등의 주요 임상증상을 나타냈으며 최초 발병 후 약 3일 동안 100수 정도의 폐사를 보였으며 4,000수 사육에 500수 정도가 폐사되었고 사양상반응을 보여 업계를 긴장시킨 바 있다.

농협중앙회

식품안전관리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26일 축산물 위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축산담당 부서장 등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안전 관리기준·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 ▲원산지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품질보증 및 인증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농협 이기수 축산유통부장은 “축산물 위생수준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축산물 소비촉진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위생,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 가공장, 포장처리장, 판매장 등 모든 유통시설에 대해 매년 주기적으로 축산물 위생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 목우촌·축산과학원 발효육가공품 공동 연구개발

농협 목우촌(대표이사 양두진)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7일 경기도 수원 소재 축산과학원에서 '발효육가공품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협 목우촌은 발효 육가공품 공동연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농협 목우촌은 축산과학원과 ▲발효육 제품 연구개발 상호협력 ▲개발된 연구 노하우를 활용한 산업화 및 상품화 ▲상호 정보교류 및 R&D 인력의 연수협력을 하게 된다.

농협 목우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고부가 가치, 고성능성 육가공품을 개발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호주 FTA 규탄 기자회견 개최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체) 소속 농축산단체 대표들은 한-호주FTA 2차 협상이 열린 서울 롯데호텔 앞에서 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축산단체 대표들은 이러한 현장 농축산인의 우

려와 분노의 뜻을 협상대표에 전달하고, 한-호주 FTA를 비롯하여 한-미, 한-EU FTA를 비롯한 모든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줄속적으로 추진중인 한-호주 FTA를 비롯한 모든 국가와의 FTA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기업중앙회와 식육판매업 HACCP 현장 방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축산물HACCP 인지도 제고를 위한 2009년 4차 식육판매업 HACCP 현장방문을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축산기업중앙회 유재춘 회장을 비롯 지역별 지회장과 실무 담당자 24명이 참석하였으며, 식육판매업소 2곳(음성청결한우, 농협성남유통센터)과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장인 (주)모란식품을 방문했다.

저녁에 실시된 세미나에서는 농식품부 조장용 서기관의 농식품 안전 정책 방향과 기준원의 HACCP 진행사항, 식육판매업HACCP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으며,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와 현장 적용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공공기관 선도적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창출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기관의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선도공공기관 발전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과거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교섭 협상, 직급별 워크숍, 기관장의 전국 순회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결과 불가능한 어려운 고비를 노사상생 분위기로 전환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군포 본사 회의실에서 이재용 소장과 장용설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의 경영 및 인사 불개입 원칙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하고, 향후 상생하고 신뢰하는 노사선진화 문화를 창출하도록 결의하였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재용 소장을 비롯한 경영진, 노조집행부, 본부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대한영양사협회

학교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하여 국회의원 김영진·황우여 공동주최, 교육과학기술부 후원으로 지난 9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 제1부에서는 국민의 식생활 현황과 문제점, 식생활 교육의 의의 및 파급효과, 국내외 식



생활 교육 추진 사례 및 금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전해경 부장(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의 강연에 이어 2005년 식육기본법 제정을 기점으로 추진된 일본의 식육 추진 시책 및 학교 영양교사에 의한 식육지도 실천 사례와 더불어 외국에서의

식생활 교육 현황에 대한 정혜경 교수(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제2부 본 토론에서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김경주 회장(사)대한영양사협회)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방안 주제에 대하여 강명희 (사)한국영양학회 회장(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표, 임노규 ATV 한국농림수산방송국장, 박태균 중앙일보 부장(식품의약전문기자), 송진선 부산청룡초등학교 영양교사,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양계경영향상 실무과정 안내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최신 양계기술, 질병관리, 브랜드 축산물 유통 등 전문교육을 통한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양계경영향상 실무과정'을 신설하고 1기 연수생을 모집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09년 11월 30일~12월 4일(5일간, 비합숙)
- 장 소 : 농업연수원(경기도 수원 소재)
- 참가대상 :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국방부, 지자체 공무원, 축산물 단체, 협회, 법인, 업계 등의 임직원, 농가, 기타 교육희망자
- 교육내용 : 양계사업 정책방향, 양계 사양관리 및 시설 컨설팅, HACCP 실무 및 농장적용 사례, 우수농장 현장견학 및 토론
- 정 원 : 35명 선착순(농식품부 공무원 3명, 지자체23명, 양계협회 등 단체 9명)
- 교 육 비 : 125,000원(5일간)
- 식 비 : 14,000원(5일간)
- 신청마감 : 2009년 11월 5일
- 문의사항 : 한성호 사무관(031-299-0121, 016-753-3741)